

2020년 봄에 드리는 오교수선교사 선교소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확진자가 진정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봄을 맞으며 드리는 2020년 두 번째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이번 학기의 선교사역 소식을 드립니다. 이번학기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유학생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고 한국에 공부를 하기 위하여 들어왔던 유학생들도 다시 휴학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졸업을 앞둔 학생들만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남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산의 부산외대와 대전의 배재대학, 진주의 경상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외대에 4명, 배재대학에 6명, 경상대학에 2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도 인터넷수업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중국인이라는 따가운 시선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집과 기숙사에서만 지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수업보다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니 언어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번학기를 잘 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몽골인유학생들도 서울과 부산에서 1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몽골인 교회와 부산의 몽골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임을 중단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위로하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종결되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20년의 선교사역을 정리하며 새로운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유학생사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몽골로 돌아가서 선교사역을 할 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교수는 계속해서 부산의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들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약물 조절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약이 조정되어서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 코로나가 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라온이를 잘 키우며 지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빛이는 구미에서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봄을 기다리며 오교수(성학)/이교수(형순) 드림

오교수/ 이교수선교사의 기도제목

1. 코로나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어 선교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2. 중국과 몽골이 속히 안정되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외국인 유학생사역이 (부산외국어대학, 배재대학, 경상대학)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4. 몽골인 유학생사역(서울과 부산)을 통하여 몽골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5. 이교수선교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남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6. 큰딸 은혜와 작은딸 은빛이의 가정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1. 부산외대 중국인 유학생 모임 후 기념촬영



2. 부산외대 중국인 유학생 모임사진



3. 대전 배재대 중국인 유학생 격려모임



4. 부산외대 유학생 격려모임